등은 서원이다

“협동으로 이룬 빛…나를 밝히고 세상 맑힌다”

한마음선원 장엄등 제작 현장

청년회 중심으로 밤낮없이 선원 찾아
올해, 만생명 자유 발원한 ‘불바퀴등’
해마다 독특한 장엄등으로 화제 중심
“건강한 삶 배우는 과정…수행 같아”
경험 · 노하우도 물려주는 선순환 구조

안양=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올해의 장엄등인 ‘한마음의 불바퀴등’ 제작을 끝내고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의자 오른쪽)과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의자 왼쪽)을 비롯한 사중스님들과 청년불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드라이어로 색을 말려가며 채색하고 있다.



각자 채색에 열중한 모습.



완성된 ‘한마음의 불바퀴등’.

아직 색이 입혀지지 않은 대형 장엄등 앞. 앞치마를 두르고 물감과 붓을 든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한 자리씩 차지해서는 익숙한 듯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이내 색칠에 집중한다. 창문 너머 활짝 핀 봄꽃도 이들을 유혹하긴 무리다. 주말의 달콤한 휴식마저 외면한 채 장엄등 채색에 몰입한 한마음선원 청년불자들이다.

색을 칠한다고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색칠이 끝난 장엄등은 드라이어로 잘 말려 먹선을 재차 덧칠한다. 입체감을 살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행여 실수라도 할까 장엄등에서 눈을 떼지 않는 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4월 6일, 안양 한마음선원 불교문화회관을 찾아 채색작업으로 분주한 청년들을 만났다. 매년 부처님오신날이면 화려하고 독특한 장엄등을 선보여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한마음선원. 청년들의 숨은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다.

작업장 입구에 들어서자 벽면을 채운 글귀들이 먼저 눈길을 끈다. 올해 장엄등 시안과 소개, 대행 선사 법어, 등 제작에 앞서 각자의 서원을 기록한 쪽지들이다.

올해 한마음선원 장엄등은 ‘한마음의 불바퀴등’.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 일깨우기 위해 기획됐다.

장엄등에 담긴 의미처럼 청년불자들의 서원에도 ‘나’보다는 ‘남’을, 나아가 모두의 평화와 화합을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다. “더불어 밝아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 등이 되길 마음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전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등 불사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들은 작업 시작 전 ‘공생’을 늘 강조해왔던 대행 스님 말씀을 읽으며 지구와 인류가 당면한 위기에 공감하고 뭇 생명의 이익과 행복을 되새긴다고 한다.

한마음선원은 매년 9월이면 다음 연등회를 위한 장엄등 시안을 준비한다. 12월부터는 시안을 토대로 100여 명의 청년회원들이 골조·전기·채색·자재·기획·운영·미디어·실·연희·용 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다. 하나의 장엄등을 완성하는 데 꼬박 9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순서는 없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작업을 마치려면 모두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기에 매일 퇴근 후 밤늦도록 작업에 매달리기 일쑤다.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지도를 맡은 팀장들의 어깨는 조금 더 무겁다. 오랜 기간 함께 정성을 쏟아야 하는 만큼 협동과 체력 관리도 꼭 필요하다.

한마음선원 청년회 지도법사 혜모 스님은 등 제작 과정을 ‘수행’과 같다고 말했다. 스님은 “옛날에 스님들이 사찰에서 참선하며 안거 수행한 것처럼, 청년들이 몇 달간 하고 싶은 것들을 참고 인내하며 선원에 모여 등 제작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모든 과정이 일상에서 수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며 “체력적으로 부담되겠지만 스스로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맑히는 건강한 삶을 배워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피력했다.

실제 청년들은 이 과정을 몸소 체험하며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는 중이다. 배득렬(33) 한마음선원 청년회장은 장엄등 기획팀장을 맡아 계획 수립, 일정 조율 등을 총괄한다. 어떤 등을 만들어야 할지,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도반들과 논의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제가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걸 해보겠습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청년회 회원들과 소통하고 수정을 반복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배 청년회장도 직장생활과 등 제작을 병행하다 보니 가끔 체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몰려올 때가 있다. 그럴 땐 ‘부처님 심부름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는다. 배 청년회장은 “등을 만들면서 각자가 내는 마음들이 등 공양 안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가 만든 장엄등을 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같이 밝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5번째 장엄등 제작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두찬(31) 불자도 올해 처음 기획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등 제작 진척 상황을 관리하려면 각 팀과 조율할 부분이 많은데, 그 과정에선 각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불자는 이같은 갈등 상황을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불자는 “개개인 간 의견 차이는 어쩔 수 없다.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되돌아보면서 각자가 한발 더 성장한다”며 “그렇게 여럿이 함께하는 시간과 경험이 모여 삶을 알아가고, 사회를 이해한다. 비로소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단단한 주도권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흐뭇한지 혜모 스님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자기 안의 믿음이 확고하면 걱정, 근심 없이 마음을 밝힐 수 있다”며 “등을 만들면서 내면에 갖춰진 힘을 되찾아 남과 비교하고 뒤처진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불안에서 벗어나길 기원한다”고 넌지시 응원의 말을 건넸다.

한마음선원이 청년회를 중심으로 창작 장엄등을 만든 건 2002년부터다. 이들은 해마다 대두되는 사회 문제가 다른 만큼 매년 새로운 장엄등 제작을 시도한다. 장엄등을 완성해 가는 과정 하나하나엔 그 해 직면한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각자의 발원과 염원이 오롯이 담겼다.

지금까지 한마음선원이 매년 발전된 등을 선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선배 청년불자들의 공이 크다. 20여 년간 차곡차곡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고스란히 후배들에게 전수해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후배들은 그런 선배들 곁에서 점차 실력을 키웠고, 어느덧 또 다른 후배를 지도하는 선배가 됐다. 이같은 선순환 구조 덕분에 웬만한 망치질부터 LED 등 설치와 전기 설비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등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는 김유학(46) 불자는 20여 년간 장엄등 제작에 사용되는 전기를 관리해온 베테랑이다. 청년회를 거쳐 거사회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후배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정리해 일러줬다.

김유학 불자는 “저 또한 전기 관련 일을 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등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었다”며 “후배들에게 등 제작에 대한 주체적인 힘을 길러주기 위해선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순환 구조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결연 채색팀장(32)도 “팀원들이 다 미술 전공자가 아니기에 가끔 실수도 하지만 각자의 장점을 이끌어내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코로나19로 멈춰 있는 동안 급격한 세대변화가 이뤄졌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주는 게 고맙다. 시국이 어렵고 전쟁,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는 요즘, 등을 밝혀 세상도 더 밝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 바쁜 와중에도 등 만들기에 충실했던 청년불자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한 청년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

